

# 일본, 2005년도 농산물수출 12% 증가

김 태 곤\*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층 증가와 세계적인 일본식품 붐을 계기로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확대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04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954억엔 이었으나 이를 2009년까지 6,000억엔으로 확대하는 소위 수출배가 5개년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인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3,311억엔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1. 공세적 농정추진

농림수산성은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여 관민일체 수출활동에 적극 자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내 소비자의 고급화와 다양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팔리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세계 각지의 수요동향을 파악한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고부가 가치화와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는 농림수산성의 공세적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는 2005년 3월 향후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을 2004년 2,954억엔에서 2009년 6,000억엔으로 배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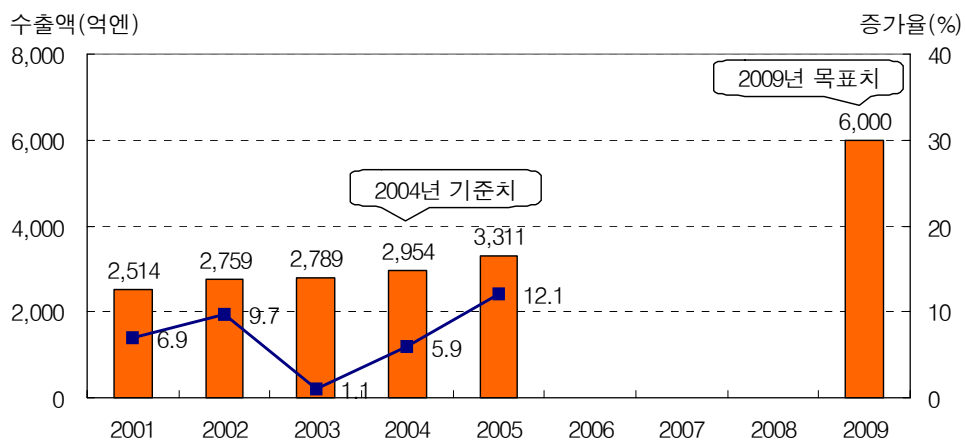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 2. 2005년도 수출실적

이러한 일본의 공세적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수출촉진대책의 결과로 2005년도 수출실적은 크게 향상되었다. 2005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액(알코올, 담배, 진주 등은 제외)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3,311억에 달한다. 5년후인 2009년 수출목표치 6,000억엔으로 향한 초년도 실적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향후 농림수산성은 생산자와 관련단체, 지자체 등에 정부지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증가율은 최근 5년간 5.9% 정도였다. 이것이 2005년도 12.1%로서 8년 만에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였다. 수출 내역을 보면 농산물이 1,772억엔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고, 임산물이 92억엔(3.7% 증가), 수산물이 1,448억엔(19.9% 증가)이다. 농산물 품목으로는 사과, 쌀, 녹차 등의 증가가 현저하다. 특히 사과는 53억 5,000만엔으로 전년대비 82.4% 증가하였고, 쌀은 원조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3억 1,600만엔으로 35.5% 증가하였다.

그림 1 농림수산물 수출배가 5개년 계획, 2004~09년



자료 : 농림수산성

이렇게 증가한 요인으로는 일본 국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고급품 지향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만에서의 증가율이 높다. 녹차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녹차 붐을 타고 21억 1,100만엔으로 25.0%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림수산물물의 수출이 늘어나고 배경에는 세계적인 일본 식품의 붐과 아시아에서의 고소득층 증가, 그리고 DDA와 FTA에 의한 무역 제도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일본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고품질의 일본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유망품목은 사과, 배, 밀감, 복숭아, 감, 참마, 녹차, 쇠고기, 쌀 등을 들고 있다.

표 1 수출 증가 품목, 2005년

품목	수출액(100만엔)	증가율(%)	증가 요인
사과	5,350	82.4	○ 산지 등의 판촉활동에 의해 대만 등에서 수출 증가
쌀	316	35.8	
녹차	2,111	25.0	○ 녹차 붐에 의해 미국과 유럽에서 증가
과자	8,977	18.6	○ 미국, 대만, 홍콩에서 증가 ○ 전시회 등을 통해 일본과자의 품질평가가 확대

자료 : 농림수산성

### 3.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일본의 수출지원대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출국에 대한 시장개척대표단 파견을 비롯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 제도나 그 운용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지원체제로는 농림수산성에 '수출촉진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대를 위하여 2005년 4월 다양한 수출관련자들로 구성되는 '농림수산물등 수출촉진 전국협의회'를 설치하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농림수산물등 수출배가 행동계획'을 수립,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아시아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의 연중 판로 창출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1) 상대국의 무역제도, 시장동향, 무역정보 등의 수집과 제공, 생산자 등에게 수출하기 쉬운 무역환경 정비 등에 지원하는 '농산물무역원활화촉진사업'

(2) 수출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가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 대표단 파견, 목표로 하는 시장에 일본 농산물 홍보, 수출 노하우를 가진 수출업체와의 프로젝트 형성과 수출개척 사례 구축 등에 지원하는 '국산농산물 해외보급사업'

(3) 현지 고급백화점 등에서의 연중 판매활동, 현지 요리점을 활용한 홍보활동, 품목별 생산자와 무역업자의 연계에 의한 다양한 수출사례 정착, 수송비 절감을 위한 수송루트 공동화 등에 지원하는 '농산물해외판로확립대책사업'

(4) 지역단위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가 행하는 전시회·상담회, 시험수출 등 수출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산품수출촉진대책' 등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은 관련 예산을 2005년 6억 5,600만엔에서 2006년도에는 12억 5,300만엔으로 증액하여 생산자와 관련단체, 도도부현, 관련 부처와 연대하면서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료 : [http://www.maff.go.jp/sogo\\_shokuryo/yusyutu.html](http://www.maff.go.jp/sogo_shokuryo/yusyutu.html) 등에서